

# '최루액 물대포' 첫 위헌 결정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살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최루액을 섞은 살수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5월31일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령의 구체적 정함이 없이 경찰청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뒀어야 한다"며 "살수차는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령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다"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혼합살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살수차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둔 결과 부적절한 살수차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살수차의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해 살수차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중·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시각각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 사항은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다"며 "혼합살수 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멈추고 해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계속 이어가 경찰이 마지막 수단으로 해산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엄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서 물대포 헌재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 사상자 발생" "탄력성 있게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반대도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자 가족인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법국민 철

이행동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살수차로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기 위해 1일 오후 10시13분부터 11시2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최루액을 물에 섞은 용액을 살수했다.

이에 A씨 등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로 눈과 얼굴 등에 통증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살수차의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해 살수차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스



호국보훈의달 앞두고 유엔공원 참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5월31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해바라기어린이집 원생들이 한국군 전몰장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경찰, 전남대 예술대학원생 몰카 촬영·추행 의혹 내사

전남대학교 예술 대학원에서 미술 수업 누드모델을 했던 여성이 대학원생으로부터 동영상 촬영과 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월31일 전남대 예술대학원생이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하거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누드모델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자보를 올려 "대학원생 B씨(여성)가 지난 3월28일 진행된 수업 도중 자신을 몰래 촬영했으며, 다른 대학원생이 제보해 이를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다. 영상을 지웠다"고 할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지도교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 B씨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사과한 이후에도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은 뒤 몸을 만지며 자세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며 B씨와 지도교수의 서면 사과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대자보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1일 A씨를 소환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 조사를 마치는대로 B씨가 강제추행한 정황·의도가 있었는지,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구체적인 적용과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남대 예술대학장과 인권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모델 A씨를 만나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재발방지책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中 해경선, 시사군도서 베트남 어선 침몰시켜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켰다고 관영 신문 단신엔 뉴스가 5월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사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경국 소속 순시선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가라앉게 했다. 당시 물에 빠진 베트남 선원들은 중국 해경선이 구조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에도 시사군도 수역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주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압박하고자 시사군도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에 강경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략폭격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고 역대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군함과 해경선의 합동순찰까지 실시했다. 중국 해경선은 시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해군 군함과 함께 순시활동을 펼쳤다.

닷새간 합동순찰 동안 40여척의 선박을 입검 조사해 이중 외국 선박 어선 10여척을 강제로 내쫓았는데 대부분이 베트남 어선이다.

## 세계 어린이 절반 이상, 빈곤·분쟁 등 직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과 분쟁, 소녀들에 대한 차별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세이프 더 칠드런'의 보고서가 밝혔다. 영국 BBC가 5월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월 1일은 세계 어린이 날이다.

세이프 더 칠드런은 이날 2회째 발표한 소년기 종료 지수(End of Childhood index)에서 이런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전세계적으로 12억명에 달하며 3가지 위험 모두에 직면해 있는 어린이도 1억53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6월1일 국제 어린이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 상황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진전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 더 칠드런에 따르면 10억명의 어린이들이 빈곤 국가들에 살고 있으며 분쟁에 영향을 받는 나라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2억4000만명이다. 또 5억7500만명의 소녀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된 국가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소년기와 미래의 잠재력을 빼앗긴 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175개 국가 가운데 96개국에서 어린이들의 상황이 개선됐지만 약 40개국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세이프 더 칠드런은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죽음과 영양실조, 교육받지 못한, 강제 결혼 및 출산 강요, 강제노동 등에 처하는지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순위를 매겼다.

어린이들의 위험이 가장 적은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3위에 올랐다. 5위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또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공동 6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는 니제르였으며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74위와 173위였다. 하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에 위치한 국가들이었다.

## 美 델타여객기, 승객 소요로 털사 중도 착륙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해 애틀랜타시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 한 대가 5월30일 오전(현지시간) 승객 한 명과 관련된 소요 사태로 오 클라호마 주 털사 공항에 중간 착륙했으며 탑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 항공기에는 탑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오라라호마주 검찰은 연방 여객기 보안요원들이 투입되어 중간 기착의 원인이 된 승객을 제압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털사의 트랜트 쇼어스 검사도 이날 성명을 발표, 현재 이 사건은 FBI가 계속 수사중이며 현지 경찰도 이 승객의 행동이 연방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승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털사 공항의 알렉시스 히긴스 대변인은 델타항공 1156편이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떠나 애틀랜타로 가던 중 이 곳에 착륙했으며 승객들은 모두 비행기에서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정부 3.3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건강 IN

###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진행률	건강진행률
건강진행률	42%p 감소	18%p 감소
건강진행률	42%p 감소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